

원예농산물산업 '전국 1위'

임실군, 농식품부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서

임실군이 원예농산물산업 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전국 1위의 기업을 토론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만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7년 수립 승인된 종합계획(2018년~2022년)의 정상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대상은 전국 지자체 129개와 품목 광역조직 12개로 총 141개소로 임실군은 이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격적 마케팅에 힘입어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APC)은 매년 30%의 성장을 끌어올리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신조직의 농업경영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함께 시행된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도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백승환)이 A등급(90개 농협조직 중 전국 8위)을 받음으로써 무이자 자금 44억원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의 배정 받게 됐다.

심 민 군수는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원예산업발전을 위한 행정·농협·조공과의 협력을 통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게 되어 보람되고 기쁘다"며 "하지만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원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치매안심센터, 안심마을 경로당 마음 쉼터 수료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했던 '신나는 두뇌튼튼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마음 쉼터 수료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

관내 5개 경로당(갈마, 양지, 학석, 선거, 학암)을 선정하여 독거노인 등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신나는 두뇌튼튼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마음 쉼터'를 지정하고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시키고, 서로 어울려 사는 따뜻한 삶을 제공하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

전형식 보건사업과장은 "찾아가는



임실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마음 쉼터 수료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

치매걱정 없는 건강한 임실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치매는 치료시기와 적절한 진료, 치매환자에 우호적인

환경 등이 얼마든지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시민사랑방 운영

남원시는 지난 19일 제2회 시민사랑방을 운영해 민원상담과 남원교육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시민사랑방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인 '민원마켓'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이화주 시장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대화'이다.

민원마켓은 남원시와 관련기관이 협력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자리 ▲건강관리 ▲생활민원 ▲복지 등 6개 상담반이 공설시장 전면주차장에서 오후 1시부터 민원상담을 열었다.

정책대화에서는 대입전형방식이 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수시)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남원시만의 특화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들의 자부심과 진학률을 높여 줄 것을 제안했



으며, 이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이 시장은 마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으로 교육발전 을 이뤄나갈 것이라 밝혔다.

시는 민선7기 들어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랑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회 시민사랑방을 열어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정책대화를 추진했다. 이화주 시장은 "시민사랑방 정책대화가 남원교육 백년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과 임실군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두가 평등한 진정한 복지사회 노력'

임실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임실군과 임실군장애인연합회(회장 손주완)는 지난 19일 임실군민회관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신대용 군의회 의장, 이용호 국회의원, 박주현 임실경찰서장 등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하여 기념식을 축하했다.

임실음악협회 및 사과나무 중창단, 운수밴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축사 등 기념식이 열렸다.

이어 난타, 풍바, 3인조 밴드의 생활의 활력 제공을 위한 위안공연과 장애인들이 참가한 노래자랑이 열려 장애인들의 숨은 끼를 맘껏 발산하는 즐거운 무대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심 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3

천여 임실군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적극 해결하고, 임실군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좋은 정책등을 제안해 주신다면 군정에 반영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 행사로 장애의 불편함보다 사회적 소외감으로 힘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건설기계 면허 정기적성검사 실시

남원시는 더 안전한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가 다시 도입되며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대상자는 2019년 4월 현재 5,301명이며, 불도저 외 24종의 면허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검사시에는 서류를 구비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및 면허취소)을 받게 된다.

면허 재발급시 구비서류는 남원시 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민원실내 차량등록계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위임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서)과 수수료 2,500원을 준비해야 한다.

남원시에서는 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통장 회의자료 등 다양한 대민 홍보를 통해 단 한 명의 누락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4·19 기념식 열어

남원시는 지난 19일 남원시 금지면 김주열 열사 묘역 광장에서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화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과 보훈단체장, 유가족,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김주열열사 약력소개, 기념사, 추모헌시 낭송, 4.19노래 제창, 묘역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주열 열사는 1944년 남원시 금지면에서 태어났으며, 1960년 마산상고에 입학하기 위해 마산에 갔다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행방불명되었다. 그해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류탄이 박힌채 시신으로 발견되어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한편 이화주 남원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참된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

순창군 공무원들이 관내 주요시설 및 자원을 둘러보고 새로운 비전 개발에 나섰다.

군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순창군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과 우수 문화시설을 탐방하는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군목을 방문한 공무원들은 이날 치유시간을 갖는 동시에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며 순창군 미래 발전을 위한 유익한 논의도 이어졌다.

둘째 날은 쉼랜드 조성이 한창인 건강장수연구소 방문했다. 쉼랜드는 순창군이 치유관광을 표방하며 힐링을 테마로 건강장수연구소 일대에 방갈로를 비롯해 워터공원과 구조조 동산 등을 조성하는 힐링관광지다.

이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방문해 공사가 한창인 발효테마파크 조성지를 둘러봤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죽향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어르신들 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르신들 교통사고 유형을 소개하고 농기계사고 예방, 이론차·사발이 등을 운전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